

액취증, 발 냄새 그리고 무좀

홍명호 고려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액취증

고온 다습한 여름이다.

더우면 자연히 땀이 나게 마련인데, 땀이 나면 유난히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액취증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 본인은 별로 괴롭지 않지만 옆 사람들이 괴로운 발 냄새, 그리고 지겨운 무좀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몸에는 땀샘이 있는데, 피부 전체에는 일반적으로 에크린 땀샘이 분포되어 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는 다른 피부의 땀샘과 다르게 아포크린 땀샘이 분포되어 있다.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원래 냄새가 나지 않지만, 아포크린 땀샘에 있는 혐기성 세균 때문에 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불쾌한 냄새를 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겨드랑이에서 특히 냄새가 심하게 나면 액취증이라 한다.

액취증은 젊은 성인에서 흔하고, 여름철이면 더욱 심하며 동양에서는 가족에서 가족으로 전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서양 사람들에게서 노린내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만, 동양에선 액취증이 대인관계나 남녀관계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일이 많

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

액취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아포크린 땀샘의 수가 더 많이 있으며, 땀을 분비하는 기능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더 증가되어 있다.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분열증 초기증상으로서의 망상 때문에 액취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가끔씩 있다.

진짜 액취증 환자는 정작 자기 자신은 불쾌한 냄새를 느끼지 못 하는 경우도 흔하다.

발 냄새

여름에 구두를 살짝 벗으면 주위를 진동하는 발 냄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괴롭다. 발 냄새가 아무리 지독하더라도 발바닥에는 아포크린 땀샘이 없고, 에크린 땀샘에서 땀이 분비됨으로 인해 발바닥의 각질이 물리지게 되고 여기에 세균이 작용하여 특유의 발 냄새가 난다.

발 냄새는 사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데, 발바닥에서 땀이 나는 것은 온도보다는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특징으로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





무좀

무좀은 족부백선이라 하여 발에 곰팡이 감염이 생긴 상태인데, 20~40대에 많고 어린이들에게는 드물다. 1960년대 이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으나 양말에 구두를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의 습도가 높아져 곰팡이 감염률이 증가했다. 성인 3명에 한 명 꼴로 무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무좀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좀환자 발에서 떨어진 인설에 의해 발에서 발로 전염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무좀은 4번째 발가락과 5번째 발가락 사이가 가장 많다. 물집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여름에 악화되며 심하게 가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바닥 전체에 걸쳐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가려워서 긁으면 가루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별로 자각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작은 수포들과 각질층 증식은 혼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액취증은 세균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땀 분비를 줄이면 냄새가 덜 난다. 항균비누로 자주 씻고, 국소용

항생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방향제 향수를 뿌리고, 항 발한제를 바르면 도움이 된다.

발 냄새는 항생제비누로 발을 잘 씻고, 항생제용액을 뿌리면 호전된다. 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 5,000배로 희석한 과산화망간용액에 매일 2~3회씩 30분간 발을 담그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액취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보톡스 주사로서 한시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무좀은 접촉성피부염, 한진, 농포성건선, 칸디다증, 특발성각화증식증, 비소각화증, 2기 매독, 약진 등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급성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습포를 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여 이를 먼저 치료 하며, 그 다음에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곰팡이를 제거해야 한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잘 낫지 않는다고 이상한 민속요법이나 무조건 독한 약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